

광주·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새 얼굴' 탄생

이영민 화순고려병원장…진산요양원 차량 지원도
김갑수 곡성 SOO GLOBAL 참치 대표…1억 약정

광주·전남 지역에서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신규 회원이 잇따라 탄생하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0일 이영민 화순고려병원장이 아너 소사이어티 196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식은 광주사랑의열매 2층 나눔문화관에서 구제길 회장과 이상철 아너 대표, 조성은 모금분과위원장, 이 병원장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병원장은 1억원 기부를 약정하고, 가입과 동시에 진산요양원 차량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금 7200여만원을 전달했

다. 이번 기부는 거동이 불편한 정신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돋보기 위한 것으로, 지역 복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병원장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를 운영하며 의료 공백 해소에 힘써 왔다. 화순소방서 구급지도의사 활동, 전남대병원 발전기금 기부, 지역 저소득층 명절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같은 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곡성군청 군수실에서 김갑수 SOO GLOBAL 참치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신규



광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0일 광주사랑의열매 2층 나눔문화관에서 이영민 화순고려병원장 아너 소사이어티 196호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가입으로 전남 168호 이자 곡성군 9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가입식에는 김갑수 대표와 가족, 혀영

호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 조상래 곡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회원 인증패 전달과 기념촬영, 나눔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향후 5년간 총 1억원을 기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0일 곡성군청 군수실에서 김갑수 SOO GLOBAL 참치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신규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하기로 약정했으며, 기부금은 전남지역 했다.

돌봄이웃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민 병원장은 "의료와 나눔 모두 사 람을 살리는 일"이라며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었다"고 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나주시-한전KDN, 지역상생 동참…전통시장 활력 '맞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연계 '목사고을시장 꾸러미 상품' 성과
공공기관 정기 구매·고정 매출 창출…전통시장 상생 모델 구축

나주시가 한전KDN과 상생협력 사업을 창출됐고 상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 마련하며 지역경제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추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위해 지역 특산물과 시장 대표 먹거리 활용한 '꾸러미 도시락 상품'을 개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한전KDN이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꾸러미 도시락 상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면서 전통시장 활

성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한전KDN의 200여개 이상의 정기 구매가 이뤄지며, 목사고을시장에서는 안정적인 고정 매출이

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상생협력 모델을 계기로 전통시장에는 활기가 더해지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내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에서도 꾸러미 상품 주문이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확산 효과를 보인다.

나주시는 이번 성과를 행정 주도의 전통시장 육성 정책과 지역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합한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발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꾸러미 도시락 상품은 단순한 먹거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



한전KDN이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꾸러미 상품을 단체 구매하고 있다.

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켜온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한 온라인 판로 확

대, 나주시 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영산포 상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 조합원 기자 pose007@gwangnam.co.kr



유백근 거성산업건설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성금 300만원을 고용군에 전달했다.

거성산업건설, 고용군에 300만원 기탁

2년 연속 이웃사랑·나눔 실천

고용군은 최근 거성산업건설로부터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받았다.

거성산업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째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명절마다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유백근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명절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나눔 문화가 지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군 김두성 기자 kds081177@



포스코광양제철소,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협력사협회와 식자재·생필품 구매 나서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제철소 협력사협회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전통시장에서 식자재 구매활동을 진행했다.

제철소는 행정성외그룹, 인사노무그룹, 설비기술부, 제설부, 생산기술부 등 여러 부서와 협력사협회가 지난 4일부터 광양5일시장, 육곡5일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에 필요한 식자재와 생필품을 구매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매년 명절 때마다 임직원들이 함께 지역 전통시장을 찾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전통시장 '착한 선결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고재윤 제철소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제철소 직원 모두 동참하는 전통시장 방문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서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윤봉현 GGM 대표이는 11일 회사를 방문한 위기 청소년 단체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 미경 원장과 전선우 사무처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 관계자들과 청소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령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GGM, 청소년단체·복지시설에 500만원 후원금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설 명절을 앞두고 훈훈한 설 명절 보내기를 당부했다.

GGM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명절마다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봉현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구현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영유아 보호시설인 전남 나주 이화영아원을 찾아 사령원 200만원을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